

Malaysia's Maritime Industries Report (June 2023)

아래 내용은 조합원의 참고를 위한 국문 요약본이며,
정확한 내용은 영문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주요 해양산업 기사

1) 경제

A) 말레이시아 교통부 “해운업계, 2050년 탄소 ZERO 달성을 위해 집중 예정”

- Datuk Hasbi Habibollah 교통부 차관 MMW2023 개회사, “해운업계, 세계 무역의 80~90% 담당 및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 차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B) 말레이시아 총리,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및 ‘수소 경제 기술 로드맵 (HETR, Hydrogen Economy and Technology Roadmap)’을 하반기 발표 예정
- 말레이시아 정부, ‘천연가스가 향후 에너지 믹스 및 저탄소 경제 시대의 핵심’

C) 말레이시아 경제부, 단계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확대 추진

2) 투자 및 파트너십

A) PTP (Port of Tanjung Pelepas), 말레이시아 조선/해운 산업 탈탄소화 주도

- Green Tug 및 Pilot Boat (친환경 선박) 사업 주도를 통해 말레이시아 탈탄소화에 기여.

B) 말레이시아, 동남아 지역 내 Green 벙커링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 보유

- 호주 전문가, 말련-호주 정부 간 진행한 인프라 관련 연구 결과 '말레이시아 지역 내 친환경 벙커링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 보유'
- 해운선사가 친환경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인 대체연료는 메탄올

C) 페트로나스 - 日 MOL - 中 SDARI, 공동개발한 LCO2 운반선 및 FSO에 대한 선급 AIP 획득

- DNV 및 ABS 선급, 페트로나스, MOL, SDARI가 공동개발한 14,000 cbm급, 87,000 cbm급 LCO2 (Liquefied Carbon Dioxide) 운반선, DPS 적용 87,000 cbm급 운반선 및 96,000 cbm급 FSO, 총 4개 모델에 대한 선급 AIP획득
- Petronas, "LCO2운반선, 향후 탄소포집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것"

3) 프로젝트

3-1) Offshore Support Vessel (OSV) / Fast Crew Boat for Offshore Project

A) RMS Synergy, 2026년 상장을 통해 선대 확충 자금 확보 예정

- RMS Synergy, 2026년까지 말레이시아 증시 상장 및 자금 확보를 통해 해양 플랜트 용 OSV 선대 확장 추진 예정
- 페트로나스, 올해 drilling 프로젝트 투입용 OSV 선박 204척, Oil Production 용 OSV 선박 147척 수요 예상

B) 동남아 지역 최초 하이브리드 CTV (Crew Transfer Vessel), Strategic Marine조선소에서 인도

- Strategic Marine 조선소, 5,000 DWT capa 드라이독 및 6,000 DWT capa 안벽 갖춘 신규 야드 공개
- 영국 HST Marine 측에 동남아 지역 최초 하이브리드 CTV 인도 완료 및 4세대 FCB (fast crew boat) 공개

C) Perdana Petroleum, 1분기 순손실 830만 링깃으로 축소

- PPB (Perdana Petroleum Bhd) 23년 1분기 순손실 830만 링깃으로, 기존 예상 대비 손실폭 축소
- 손실 발생의 주요 요인은 1분기 발생한 장마로 인한 선박 운용률 저하
- PPB는 원유 생산 및 유지보수 목적선 15척 운영 중

3-2) High Speed Boat (FIC/FCB/Fast Crew Boat) & Naval Vessel

A) 말레이시아 서방 함대, 안보 지형 변화 추세에 걸맞는 신규 투자 필요

- 말라카 해협에서의 '존재감 확보'를 위해 훈련 등 강화 중이나, 보유 선박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유지/보수 비용 지속 증가 중

B) 전 해군 소장 : 안보 환경 변화에 걸맞는 국방비 증대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 전 해군 총사령관, 세계 및 지역 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비용을 2023년 국방 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 및 정부가 설정해야 할 3가지 목표 제시

- a) 말레이시아 해군 연안 전투함 (LCS 프로젝트)의 지속 및 성공적 완료
- b) LMSB 2 (Littoral Mission Ship Batch 2) 프로젝트 관련, 충분한 예산 편성
- c)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말레이시아 군 전체에 대한 지출 계획 (예산) 재 산정

C) 말레이시아, 어려움 지속 중인 LCS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

- 일정 지연 등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LCS 프로젝트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가 자금 4억 3천만 USD 상당 지원 결정
- 말레이시아 BNS (Boustead Naval Shipyard) 조선소는 프랑스 군함인 Gowling-Class 프리깃함을 바탕으로 LCS 프로젝트를 건조 중이나 생산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 6척 계약을 5척 인도 계약으로 수정할 예정이며, 1호선은 기존 계획 대비 7년 늦은 2026년 내 인도 예상됨

-끝-